

## 〈元斗杓實記〉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

곽 정 식\*

###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2) 역사적 사실의 소설 수용 양상            |
| 2. 창작 방법          | (3) 설화의 소설화 양상                  |
| 1) <홍장군전>의 영향     | 3. 창작 방법을 통해 본 <원두표실기>의 소설사적 의의 |
| 2) 역사적 사실과 설화의 수용 | 4. 마무리                          |
| (1) 창작 동인         |                                 |

### 국문초록

우리 고소설사에서 볼 때, 20세기에 들어 국문 활자본으로 간행, 유통된 <원두표실기>는 <홍장군전>, <한씨보응록>과 함께 <수호지>와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원두표실기>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의 일환으로 작품의 형성 과정과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전승을 통해 실존인물 원두표는 위엄 있는 풍채에 뜻이 크고 강직하여 스스로 호걸임을 자부하였고, 또한 武才까지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바, 이 같은 사실로 인해 <홍장군전>의 독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흥윤성에 연결될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 있었으며, 이를 機緣으로 하여 <원두표실기>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두표실기>가 외형상 실존인물 원두표의 실제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실 사실의 수용은 서두부와 결말부를 통해 극히 단편적,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그쳤으며, 사건 전개的大部分을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을 모방, 답습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서두부와 결말부도 세부적인 내용은 설화적 전승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실존인물에 관한 한 설화의 소설화에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창작 방법과 관련하여, <원두표실기>는 <수호지>와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극히 드문 事例일 뿐더러, 민족사적 입장에서 義勇無雙한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不義한 外勢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자 했던 데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주제어 : <원두표실기>, <홍장군전>, <수호지>, <타호무송>, 창작 방법, 역사적 사실, 설화적 전승, 소설사적 의의

## 1. 들어가기

<원두표실기>는 1930년 太華書館에서 朴垞杓를 저자로 하여 국문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sup>1)</sup>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강감찬실기>, <단종대왕실기>, <이순신실기> 등 다수의 작품이 木寬樵夫·申泰三·崔瓚植 등을 著者 혹은 編者로 하여 간행되었는데, <원두표실기>의 저자 朴垞杓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원두표실기>의 서지사항에 출판년도 1930년, 저자 '박애표'라고 하였으나, 이는 垞를 埃로 誤讀한 때문이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 목록』, 서울: 집문당, 1999, 456쪽에 太華書館本 1930년, 世昌書館本 1961. 12. 30 일로 되어 있는데, 世昌書館本의 경우 뒷면에 붙어 있는 廣告紙에 1962. 12. 30일로 되어 있어 계산상의 착오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이본은 동일본이다.

는 1952년 세창서관에서 간행된 <세종대왕실기>에도 저자로 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상 실존인물에 대해서 사실 기록을 표방한 일군의 고소설 작품이 20세기에 활자본으로 간행, 유통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실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원두표실기>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창작 방법이란 작자가 형식과 내용을 갖추 현실적인 작품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라 하겠는데, 본고에서는 선행 텍스트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설화적 전승이 <원두표실기>의 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수용되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원두표실기>는 <홍장군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단편적으로 검토되었을 뿐, 작품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찍이 李慶善은 <홍장군전>이 <수호지>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번안의 의도로 쓰여진 작품으로서 開化期의 시대적 주제의식을 가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고,<sup>2)</sup> <홍장군전>과 <원두표실기> 사이에도 내용상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원두표실기>를 <홍장군전>의 模倣作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sup>

이렇게 볼 때, 이 글은 <원두표실기>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의 일환으로서, 아직까지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원두표실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20세기에 들어 구활자본소설로 간행, 유통되었던 실기류 고소설의 전반적인 창작 방법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경선, 「홍장군전 연구」, 『한국학논집』 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4, 228쪽.

3) 이경선, 앞의 논문, 242쪽. 이에 대해서 조희웅은 『고전소설 이본목록』, 서울: 집문당, 1999, 456쪽 및 863쪽), 『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 서울: 집문당, 2000, 320쪽 및 533쪽. 『고전소설 줄거리집성』 2, 서울: 집문당, 2002, 1023쪽 및 1699쪽에서 <원두표실기>가 <홍당군전>과는 이본의 차원을 벗어나 상당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 2. 창작 방법

### 1) <홍장군전>의 영향

<홍장군전>은 1918년 五車書廠에서 국문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상·하권 각 9회의 장회체로 되어 있으며, 하권 말미의 廣告文을 통해 李海朝(1869~1927)가 ‘特別編輯’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외형상으로는 조선 세조 때의 명장 洪允成(1425~1475)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水滸志>와 <打虎武松><sup>5)</sup>에 나오는 武松의 이야기를 모방, 답습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첨삭과 변개를 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존인물 洪允成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형 大成의 원수 갚는 이야기와, 그로 인해 귀양을 가거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니는 전반부의 이야기는 그대로 <수호지>와 <타호무송>에 나오는 무송의 이야기를 번안의 방식으로 모방, 답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牧丹이라는 妓生과 안평대군의 이야기, 그리고 洪允成이 수양대군을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하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의 부분적인 수용과 설화적 전승에서의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sup>6)</sup>

4) <홍장군전>. 仁川大 民族文化研究所 편.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2, 서울: 銀河出版社, 1984, 591쪽. “朝鮮古代 英雄 洪將軍傳 韓氏報應錄 兩種小說을 著作大家 李海朝氏가 特別編輯하고 花의血, 雙玉笛, 鬢上雪, 누구의죄 四種小說도 李海朝氏가 一新校正하여 本廠에서 印刷發行호오니……”

5) <打虎武松>은 高敬相을 編輯 兼 發行者로 하여 1918년 4월 3일, 廣益書館에서 국문 활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는데, <수호지> 제22회에서 제30회까지의 武松 이야기를 번역하는 가운데서 장회체소설(9회)로 이루어졌다. 특히 <타호무송> 제1회와 제9회, 즉 서두부와 결말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變改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서두부는 그 회目を <수호지> 제22회와 동일하게 사용하되 무송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수호지> 제21회의 내용 일부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내용을 새롭게 편집하는 가운데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결말부는 <수호지> 제30회의 내용 일부를 축약한 것인 데도 회目は <수호지> 제30회의 회目を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曠正식, 「<洪將軍傳>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8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405-432쪽 참조.

이처럼 <홍장군전>은 <수호지>와 <타호무송>에서 일부 내용을 모방, 답습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내용이 다시 <원두표실기>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원두표실기>의 줄거리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元斗杓는 水使 元裕男의 아들로 膂力이 강하고 뜻이 큰 豪俠 男兒이다.
- 2) 斗杓가 15-6세에 原州 神林에서 귀신을 모시는 당집을 때려부수고 혼자 자고 있는데, 밤중에 귀신이 와서 보고는 ‘정승대감’이 오신 줄을 몰랐다고 하며 사라진다.
- 3) 斗杓가 서당에서 스승을 괴롭히는 빗쟁이를 주먹으로 쳐 죽인다.
- 4) 斗杓가 도망하여 다니다가 患州 관리에게 체포되어 옥중에 갇히다.
- 5) 斗杓가 옥중에서 異人을 만났는데, 이인이 그에게 장차 정승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일곱 번 살인할 운수라고 하다.
- 6) 斗杓가 獄卒에게 돈을 주어 술과 고기를 사오게 하여 함께 마시고 大醉한 옥졸 6-7인을 때려죽이고 탈옥 도주하다.
- 7) 斗杓가 梁山으로 도망가서 지내던 중 통도사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통도사 중 慧明이 술을 마시고 新行하는 행차를 붙잡고 신부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주먹으로 쳐 죽이고 자수하다.
- 8) 양산 군수가 斗杓의 義勇을 칭찬하여 邑中에 머물러 있게 하다.
- 9) 斗杓가 본읍 장교 金春鳳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러 주점에 갔다가 술 파는 일을 하는 딸을 찾으러 안동에서 온 노인(鄭元根)을 만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은자 10냥을 준 후 돌아오다.
- 10) 노인이 斗杓를 찾아와 주점 주인 이춘삼의 부당한 처사를 이야기 하자 斗杓가 주점으로 가서 딸을 노인과 함께 도망하게 한 후 이춘삼을 쳐 죽인다.
- 11) 이춘삼의 아들 李運甫가 官에 고하여 復讐하려는 것을 알고 김춘봉이 斗杓에게 도망할 것을 권하자 斗杓는 대장부로서 떳떳이 죄

---

6) <홍장군전>의 후반부는 대체로 『筆苑雜記』·『慵齋叢話』·『靑坡劇談』·『松窩雜說』·『五山說林草藁』·『寄齋雜記』·『涪溪記聞』·『溪西野譚』·『東野彙輯』·『靑野謾輯』·『記聞叢話』·『海東奇話』·『大東野乘』 등 여러 문헌에 전하는 홍윤성 관련 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설화의 소설화로 볼 수 있다.

를 받을 것이라고 하다.

- 12) 두표가 김춘봉의 권유로 玄風에 사는 그의 처남 安成浩를 찾아 길을 떠나다.
- 13) 官에서 두표의 용모를 그려 각읍에 조회하고 重賞을 걸고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
- 14) 두표가 玄風으로 安成浩를 찾아가 얼마 동안 은신하다.
- 15) 두표가 고향으로 향하던 중 밀양읍에서 자신을 잡으라는 방이 걸린 것을 목격하고, 우연히 그곳에서 정원근을 만나 환대를 받고 은신하다.
- 16) 두표가 정원근의 후의로 상제 복장을 하고 永同에 사는 당숙을 찾아갔다가 당숙의 재취가 이춘삼의 딸임을 알게 되다.
- 17) 당숙모의 생일을 앞두고 친정 오라비인 이운보가 당도하여 남매가 함께 원두표 잡을 일을 의논하는 것을 정영식에게서 전해듣고 두표가 두문불출하다.
- 18) 두표를 알아본 이운보의 신고로 군관들이 들이닥쳐 소란이 벌어졌는데, 두표가 죄 없는 정영식이 맞는 것을 보고 철여의로 이운보를 쳐 죽이다.
- 19) 당숙이 두표를 결박하고, 군관들이 그를 압령하기 위해 檻車를 준비하는데, 정영식이 집에 불을 질러 두표를 구하고 함께 木川 摩尼山으로 도망하다.
- 20) 숲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던 중 두표가 입신할 기회를 찾하고자 하여 정영식과 헤어져 경성으로 가다가 忠州 관리에게 붙잡혀 경성으로 압송되다.
- 21) 두표는 배가 한강의 銅雀津을 건널 때 배에서 뛰어내려 潛泳으로 도망하다가 鴨鷗亭에 당도하여 赤身으로 마루 밑에 은신하다.
- 22) 마침 綾陽君(仁祖)을 위시하여 申景禎, 崔鳴吉, 張維, 沈命世 등이 압구정에 모여 反正陰謀를 하던 중 병조판서를 맡을 사람이 없어 의논이 분분하다.
- 23) 이때 赤身의 원두표가 병조판서 나간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나타나자 綾陽君이 기골이 장대함을 보고 그를 병조판서로 삼다.
- 24) 반정 계획이 완성되어 광해군 15년 3월 12일 밤 洗劍亭에 모였다가 兵馬를 이끌고 神武門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內應兵이 나타나지 않다.

- 25) 모두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두표가 도끼를 구하여 神武門을 때려부수고 들어가 반정의 큰 공신이 되다.
- 26) 두표는 靖社二等功臣 平原府院君에 봉해지고, 후에 우의정, 좌의정에 올라 부귀를 누렸으며, 후세 사람들이 도끼정승이라 하다.<sup>7)</sup>

위와 같은 <원두표실기>에 대하여, 李慶善은 <홍장군전>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유사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였다.

두 主人公은 다 힘이 세고, 술을 좋아하며 義俠心이 강하다. 表題에 義勇雙全-義勇無雙에서부터 羅州의 성황당 과쇄-原州郡 神林의 당집 과쇄, 通度寺의 중 淸明-通度寺의 중 慧明, 新郎은 桃花村의 韓明進-新郎은 杏花村의 尹明浩, 將校 昔春鳳-將校 金春鳳, 下人 鄭光根-下人 鄭영식, 酒店主人 李春達-酒店主人 李春三, 老人 張海根-老人 鄭元根, 淸道 槐花村에 사는 昔春鳳의 妻男 張文煥-玄風 馬場村에 사는 金春鳳의 妻男 安成浩, 永同 摩尼山에서 솟장사-木川 摩尼山에서 솟장사, 堂叔 洪俊模-堂叔 元裕成, 李春達의 아들 李運百-李春三의 아들 李運甫, 堂叔母가 太萬石의 누이-堂叔母가 李運甫의 누이, 鷺梁津-銅雀津, 濟洲亭-鴨鷗亭, 首陽大君(世祖)-定遠君(仁祖), 世祖篡位-仁祖反正, 그리고 두 사람이 다 兵曹判書·右議政·左議政이 되고, 府院君에 封해졌다.<sup>8)</sup>

그런데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은 실존인물 홍윤성과 원두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구적인 이야기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원두표실기>의 단락 7)~19)까지의 이야기는 <홍장군전>의 전반부에서 홍윤성이 사람을 죽이고 梁山, 密陽, 永同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도망 다니는 이야기에 그대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홍윤성과 원두표는 <수호지>와 <타호무송>에 나오는 영웅 好漢의 모

7) <元斗杓實記>, 仁川大 民族文化研究所 편, 『구할자본고소설전집』 29, 서울: 銀河出版社, 1984, 1-50쪽.

8) 이경선, 앞의 논문, 242쪽. 위에서 定遠君(仁祖)는 誤記 定遠君은 宣祖의 아들로서 추존되어 元宗이 되었고, 그의 맏아들이 綾陽君으로서 즉위하여 仁祖가 되었다.

습을 지니고 불의한 자를 징치하며 처단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리하여 <홍장군전>이 그 표제에서 ‘義勇雙全’이라 한 것을 <원두표실기>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표제에 ‘義勇無雙’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 작품의 창작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두표실기>는 <홍장군전>의 전반부에서 兄嫂의 姦通과 兄大成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형수에 대한 홍윤성의 報讎 과정의 이야기는 모두 배제하고, 대신에 실존인물 원두표와 관련한 설화적 전승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발단부를 비롯한 전반부의 사건 전개를 허구적인 이야기로 결구하였다. <홍장군전>에서 홍윤성이 귀양을 가거나 도망 다니는 이야기는 홍윤성이 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報讎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이는 <수호지>와 <타호무송>의 무송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원두표실기>는 이 부분을 <홍장군전>과 달리 실존인물 원두표와 관련한 설화적 전승에서 취제한 허구적인 이야기로 결구해 놓았다.<sup>9)</sup> 이는 <원두표실기>가 <수호지>와 <타호무송>과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작품의 후반부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실이다. <홍장군전>의 후반부에서 牧丹이라는 妓生과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홍윤성이 首陽大君을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원두표실기>의 후반부에서 원두표가 綾陽君을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하는 이야기에 그대로 일치한다. 따라서 <원두표실기>는 실존인물에 관한 역사적 사실 및 설화적 전승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장군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겠다.

## 2) 역사적 사실과 설화의 수용

### (1) 창작 동인

9) 이에 대해서는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원두표실기>는 외형상 元斗杓(1593~1664)의 실제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거나, 우의정, 좌의정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하는 부분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대체로 실존인물 원두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원두표실기>가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고, 특히 주인공이 梁山, 密陽, 永同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도망을 다니면서 불의한 자를 처단하여 징치하는 이야기에서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홍장군전>의 독서과정에서 홍윤성의 이야기에 원두표를 결부시켜 <원두표실기>를 성립시킨 동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그의 爲人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元斗杓는 白身の 신분으로 일어나 靖社 勳에 참여하여 갑자기 宰相의 반열에 올랐다. 여러 차례 지방관을 맡으면서 자못 威風이 있었다. …… 신묘년(1651) 사이에 尹善道가 상소하여 재주는 많지만 덕이 없고 음험하여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다는 등의 말로 두표를 배척하였다. 말년에 드디어 정승에 제수하는 명을 받고 黃閣에 7년 동안 있었으나 정승으로서의 업적이 없었다. 성품이 영큼하고 시기심이 많으며 거칠고 사나워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끝내 반드시 몰래 해친 뒤에야 그만두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두려워하였다.<sup>10)</sup>

원두표는 布衣로 靖社 勳錄에 참여하였다. 어릴 때부터 뜻이 크고 강직한 기풍이 있어서 스스로 영웅다운 호걸임을 자부하였는데, 성질이 자못 거칠고 오만하여 선비들로부터 추앙을 받지 못하였다.<sup>11)</sup>

10) 『顯宗實錄』 현종 5년 6월 24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36책 418쪽. 元斗杓卒記, 斗杓起自白身, 以參錄靖社之勳, 故驟陞宰列. 然屢典藩臬, 頗有威風, ……辛卯年間, 尹善道疏斥斗杓多才而蔑德, 陰險而包藏等語. 乃於末年, 遂膺爰立之命, 七年黃閣, 無相業. 而性猜險驕暴, 少有不協, 終必陰中而後已, 人多畏之.

11) 『顯宗改修實錄』 현종 5년 6월 27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37책 388쪽. 元斗杓卒記, 斗杓以布衣, 參靖社勳, 自少負氣倜儻, 以雄俊自命, 而性頗驕仇, 不得爲士論所推.

위에서 보듯이, 실존인물 원두표는 白身으로 仁祖反正에 참여하여 재상의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 자못 威風이 있었으며, 뜻이 크고 강직한 기풍이 있어 스스로 영웅다운 호걸임을 자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영큼하고 시기심이 많으며 거칠고 사나워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끝내 반드시 몰래 해친 뒤에야 그만두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두려워했다고 함으로써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물이 <홍장군전>의 홍윤성에 연결되고, 나아가 <원두표실기>를 성립시킨 동인을 찾는다면, 우선 그가 仁祖反正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仁祖를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한 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원두표실기>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설화적 전승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홍윤성이 世祖反正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世祖를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한 사실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sup>12)</sup>

또한 그는 뜻이 크고 강직한 기풍이 있어 스스로 영웅다운 호걸임을 자부하였으며, 특별히 武才까지 갖추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仁祖 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御營副使에 임명되었고, 申景禎·具宏·李時白과 함께 四營大將으로 남한산성을 수비하였으며, 더구나 효종 때에는 병조판서로 군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벌정책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전 설화자료에서도, 명풍수를 곤욕케 하여 정승 될 묘지를 얻었다거나, 도끼로 대궐문을 부수고 들어가 도끼정승으로 불렸다가, 혹은 반정을 모의하는 자리에 ‘병조판서 들어간다’고 하여 병조판서가 되었다거나 하여 豪俠 男兒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 또

12) 홍윤성이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端宗實錄』 단종 즉위년 7월 25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6책 521쪽. 洪允成謁世祖曰, “公以英雄之才, 名聞素著, 今世宗、文宗相繼賓天, 幼冲在位, 忠邪混淆, 朝政紊亂, 公雖空守小節, 一加之以惡名, 則後世誰知者 此正不得不處變之時也.” 世祖曰, “天道益謙, 人道好謙, 不如順受其正耳, 若能倡義, 天人助順, 必有從風趨附者矣, 遲速變化, 何勢不可, 子能從我, 忘妻子、死社稷乎.” 允成曰, “是吾心也, 士爲知己死, 妻子之累, 何足論耶.” 世祖曰, “與子戲耳.” 참조.

한 흥운성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sup>13)</sup>

이처럼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신에 봉해지고 임금을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한 내력은 물론, 위엄 있는 풍채에 뜻이 크고 강직하여 호걸을 자부한 데다 武才까지 갖추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홍장군전>의 독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흥운성에 연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리하여 <원두표실기>의 성립과정은, 마치 흥운성이 雄偉한 용모와 뛰어난 체력을 지닌 데다 武才까지 갖추고, 아울러 斗酒不辭의 술고래였다는 사실로부터 <水滸志>와 <打虎武松>의 독서과정에서 好漢 武松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홍장군전>을 산출한 경우와 너무도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sup>14)</sup>

이로써 <원두표실기>가 <홍장군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개별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생각할 때,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전승이 실제로 작품 속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역사적 사실의 소설 수용 양상

이제부터 <원두표실기>에 수용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작품 표제에서 보듯이, 작자는 실제 행적에 관한 사실 기록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기실 작품에 수용된 역사적 사실은 극히 단편적,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서두부에서는 단지 元斗杓가 水使 元裕男의 아들로 膂力이 강하고 성질이 豪俠하다고 하는 데서 그쳤으며,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綾陽君(仁祖)을 도와 반정에 성공함으로써 후에 우의정·

13) 『端宗實錄』 단종 3년 1월 24일자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7책 7쪽, “洪允成은 기품이 雄偉하고 武藝가 出衆하여 직책이 항상 司僕을 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筆苑雜記』·『慵齋叢話』·『靑坡劇談』·『松窩雜說』·『五山說林草藁』·『寄齋雜記』·『涪溪記聞』·『溪西野譚』·『東野彙輯』·『靑野謾輯』·『記聞叢話』·『海東奇話』·『大東野乘』 등 여러 문헌에서 흥운성을 豪俠男兒로 이야기하고 있는 설화가 다수 전해온다.

14) 자세한 논의는 광정식, 앞의 논문, 405-432쪽 참조.

좌의정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이에 원두표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관은 原州. 자는 子建. 호는 灘叟, 灘翁. 原溪君 裕男의 아들로 朴知誠의 門人. 儒生으로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靖社功臣 2등에 冊錄, 原平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이후 司僕寺主簿, 영광군수, 전주부윤을 거쳐 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御營副使로서 남한산성을 지켰다. 1642년 형조판서에 이어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에 西人の 功西에 소속, 淸西를 탄압하면서 같은 과 金自點과의 권력 다툼으로 분당되자, 原黨의 領袖가 되었다. 1651년(효종 2) 호조판서, 좌참찬을 거쳐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 金自點의 역모사건을 처리했고, 이듬해 개성유수 등을 거쳐 1653~56년에 병조판서로 군비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1657년 우의정으로 세자의 스승이 되었고, 1662년(현종 3) 좌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忠翼이다.<sup>15)</sup>

위에서 보듯이, 유생 신분의 元斗杓가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고, 그로 인해 官人으로서 화려한 생애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는 서두부와 결말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극히 소략하게 언급하는 데서 그쳤다.

그는 수사원유남(水使元裕男)의 아들이니 원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려력(膂力)이 강대한 것은 물론이고 뜻이 크고 성질이 또한 호협한 쾌남아이라<sup>16)</sup>

원두표는 그 공으로 정사이등공신(靖社二等功臣)이 되어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까지 봉하고 효종 병신(孝宗丙申)에는 우의정(右議政)으로 좌의정(左議政)으로까지 이르러 부귀가 면면하야<sup>17)</sup>

15) 『(국역)국조인물고』 15, 朴世采, 元斗杓墓碣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03, 31-42쪽 참조.

16) <원두표실기>,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1쪽.

17) <원두표실기>, 앞의 책, 50쪽.

이처럼 원두표가 水使 元裕男의 아들로써 膂力이 강대하고 뜻이 큰 豪俠男兒라고 하고, 또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靖社二等功臣이 되고 우의정, 좌의정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그대로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原平府院君’을 ‘平原府院君’이라 한 것에서 작자의 사실 인식이 피상적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sup>18)</sup>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남에게 굽힘이 없는 씩씩한 기상으로 인해 諫院에서 公卿을 능멸하고 조정의 명분을 무너뜨렸다는 탄핵을 받기까지 하였고,<sup>19)</sup> 또 李适의 난리에 임금이 공주로 거동하려고 한강에 이르렀으나, 캄캄한 밤에 뱃길이 끊어져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勤王하던 원두표가 마을집에 불을 질러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 招諭하여 배 수십 척을 얻어 건너게 했다<sup>20)</sup>고 하였다. 이 같은 호협한 기풍은 구전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설화 구연자들은 ‘원두표’ 하면 으레 ‘장사’ 혹은 ‘장군’이라고 하거나,<sup>21)</sup> 간담이 크고 배포가 있었다거나<sup>22)</sup> 하였다. 또 더러는 그의 용력과 武才가 가문의 혈통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기까지 하였다.<sup>23)</sup> 실제로 원두표의 고조부 元彭祖를 비롯하여 증조부 元松壽, 조부 元豪, 부친 元裕男이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집안이 대대로 武烈로써 후손을 열어주었다고 하였다. 특히 조부는 선전관을 시작으로 北

18) 각주 12) 참조.

19) 『仁祖實錄』 인조 2년 3월 23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33책 603쪽. 諫院啓曰, 靈光郡守元斗杓, 頃於去邠之日, 騎馬直入賓廳門外, 遇兵判金塗, 言語不遜. 及至江上, 與承旨洪瑞鳳, 相爾汝. 朝廷所持者名分, 名分一壞, 則必至下陵而上替. 昔管崇嗣, 當靈武搶攘之日, 背闕言笑, 尙被彈劾. 今此斗杓騎馬闕庭, 陵侮公卿之罪, 豈止背闕言笑而已? 請先罷後推.” 答曰, “元斗杓, 推考.”

20) 『(국역)국조인물고』 15, 朴世采, 元斗杓墓碣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33쪽 참조.

21) <원두표 이야기>, 한국정신문화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2, 1980, 20-25쪽. <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1-2, 165-166쪽. <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1-3, 374-376쪽.

22) <도끼 정승 원두표>, 앞의 책 1-4, 320-325쪽. <간담이 큰 원두표와 풍수>, 앞의 책 7-10, 805-809쪽.

23) <원두표 이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2, 20쪽.

關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임진왜란에는 수군절도사로 왜적을 막다가 節死하여 시호를 忠壯이라 하였다.<sup>24)</sup> 또 부친 元裕男은 23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26세에 重試에 장원하여 內外職을 역임하였고, 기상이 빼어나 바라만 보아도 중후한 長者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sup>25)</sup> 그의 卒記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原溪君 元裕男이 죽었다. 유남은 젊어서 勇力으로 소문이 났는데, 임진왜란 때에 權慄의 軍營에 소속되었다가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게 되자 功을 세워 스스로 보답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적군 속으로 달려 들어가 몇 사람의 머리를 베니 권율이 장하게 여겨 죄를 풀어 주었다. 계해년에 그 아들 元斗杓와 함께 靖社功臣에 녹훈되었다.<sup>26)</sup>

이러한 가문의 혈통에서 원두표가 위엄 있는 풍채에다 勇力과 武才를 지녔다고 하는 외형적, 기질적 특성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바, 이 같은 특성을 창작 동인으로 하여 작품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위에서 보았듯이, <원두표실기>가 외형상 실제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실 역사적 사실의 수용은 서두부와 결말부에서 극히 단편적,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건 전개의 상당 부분을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을 모방, 답습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수용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나 인물의 형상화는 대개 설화적 전승에서 취재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24) 『(국역)국조인물고』 15, 權尙夏, 元豪墓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03, 60-63쪽 참조.

25) 『(국역)국조인물고』 15, 權尙夏, 元裕男墓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2003, 53-55쪽 참조.

26) 『仁祖實錄』 인조 9년 9월 13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34책 442쪽, 原溪君 元裕男卒. 裕男, 少以勇力聞. 壬辰之亂, 屬權慄營下, 有罪當刑, 請立功自效. 乃馳入賊中, 斬首數級, 慄壯而釋之. 至癸亥年, 與其子斗杓, 參靖社勳.

(3) 설화의 소설화 양상

먼저 원두표에 관한 현전 설화 자료를 살펴보면,

- 1) 宋時烈, 『宋子大全』에 수록된 자료 : 1편
- 2) 姜敷錫, 『大東奇聞』에 수록된 자료 : 2편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 : 11편
- 4) 이수자, 『설화 화자 연구』에 수록된 자료 : 1편
- 5)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민간설화자료집』에 수록된 자료 : 2편

그리고 이들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 (ㄱ) 원두표가 이원익을 찾아가 밤에 잠꼬대로 반정의 뜻을 전한 이야기.
- (ㄴ) 원두표가 살인을 하고 도망 다닌 이야기
- (ㄷ) 원두표가 도끼로 대궐문을 부수고 들어가 도끼정승이라 부른다는 이야기.
- (ㄹ) 원두표가 親喪에 명풍수를 곤욕케 하여 자신이 정승 될 묘지를 얻은 이야기.
- (ㅁ) 반정을 모의하는 자리에 원두표가 ‘병조판서 들어간다’고 하여 병조판서가 되었다는 이야기
- (ㅂ) 원두표가 사형장에서 한강에 투신하였다가 인조반정에 참여한 이야기.
- (ㅅ) 원두표가 기가 세고 배포가 큰 인물이라는 이야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전승 양상을 보면, 독립된 이야기로는 (ㄱ) / (ㄹ) / (ㅅ)이 각각 1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ㄷ)+(ㅅ) / (ㄹ)+(ㄷ) / (ㅁ)+(ㄴ) / (ㅅ)+(ㄱ) / (ㅅ)+(ㄹ)의 전승이 각각 1편이며, 이밖에 (ㄱ)+(ㄷ)+(ㅂ) / (ㄱ)+(ㅂ)+(ㅁ) / (ㄷ)+(ㄹ)+(ㅂ) / (ㄹ)+(ㄴ)+(ㄷ) / (ㄹ)+(ㄷ)+(ㅅ) / (ㄹ)+(ㅅ)+(ㄷ) / (ㅅ)+(ㄹ)+(ㄷ) / (ㄷ)+(ㄹ)+(ㄴ)+(ㅂ) / (ㄹ)+(ㅅ)+(ㅁ)+(ㄷ)의 구조적 전승물이 각각 1편씩이다. 여기서 (ㄷ)과 (ㄹ)에 관한 자료가 각각 10편에 이르고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ㄱ)~(ㅇ)이 모두 (ㅅ)에 근거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두표 관련 설

화적 전승은 (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설화적 전승이 <원두표실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기정승! 팔뚝대신! 아니 백의병조판서원두표(白衣兵曹判書元斗杓)라 하면 누구나 별로 모를 사람이 업슬 것이다. 그는 수사 원유남(水使元裕男)의 아들이니 원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려력(膂力)이 강대한 것은 물론이고 뜻이 크고 성질이 또한 호협한 쾌남아이라”<sup>27)</sup>

이로 보아, <원두표실기>의 작자가 특히 (ㄷ)·(ㄹ) 등의 설화적 전승을 염두에 두고 서두부에서 ‘도끼정승, 팔뚝대신, 백의병조판서 원두표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원두표가 어려서부터 膂力이 강대한 것은 물론 뜻이 크고 성질이 호협한 쾌남아라고 한 것에서 (사)을 포함한 자료의 적극적인 수용 및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과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다. (ㄷ)을 포함한 자료 중에는 처음부터 원두표를 가난하고 무식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산골에서 숲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느라 도끼를 잘 썼다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고자 한 이야기까지 구전되고 있다.<sup>28)</sup>

이와 함께 원두표의 發身에 관한 이야기는 풍수설화를 통해 더 많이 알려져 왔다. 어려운 처지의 원두표 3형제가 親喪을 당하자, 막내인 원두표가 發福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천하에 이름난 풍수를 붙잡아 높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이리하여 곤욕을 당하고 있는 풍수를 뒤에 형이 찾아가서 구해주자, 풍수는 은혜를 갚고자 하여 형제 중 한 사람이 장차 정승 될 묘지를 잡아주었다는 내용인데, 풍수가 잡아준

27) <원두표실기>,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할자본고소설전집』 29, 1984, 은하출판사, 1쪽.

28) <원두표>,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민간설화자료집(3)』, 332-336쪽.



묘터가 워낙 기가 세서 정승이 되려면 사람을 몇을 죽여야 한다고 하고, 그 때문에 원두표가 發身하기까지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sup>29)</sup>

그런데 일찍이 정조 때 간행된 『國朝人物考』에서 (사)에 관한 여러 편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sup>30)</sup> 그 일부가 그대로 『大東奇聞』(1926)에 수록되어 있다. 또 (나)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宋子大全』(1787)에 전하고 있으며, 뒤에 와서 『大東奇聞』에 또한 수록되어 전한다.<sup>31)</sup>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구비설화에서 (c)·(e)·(d)·(b)에 관한 이야기가 채록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학계에서 19세기 중엽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2)</sup> 이렇게 볼 때, <원두표실기>(1930)는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

29) <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1-2, 202-206쪽. <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1-5, 284-289쪽. 이밖에 과거 급제할 자리를 잡아주었다(<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7-11, 311-314쪽)거나. 그냥 정승 될 자리를 잡아주었다(<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1-3, 374-376쪽. <도끼 정승 원두표>, 1-4, 320-325쪽. <도끼로 정승 된 원두표>, 앞의 책, 2-5, 782-785쪽)거나 하였고, 또 불여우형국에다 터를 잡아주었는데 원두표가 불여우를 잡아죽이고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간담이 큰 원두표와 풍수>, 앞의 책, 7-10, 805-809쪽. <원두표>,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민간설화자료집(3)』, 332-336쪽)와 풍수가 자신을 괴롭힌 것이 원두표라는 걸 알고 역적으로 몰리게 자리를 틀어버렸다는 이야기(<원두표 이야기>, 앞의 책, 2-2, 513-517쪽) 등이 전해온다.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국역 국조인물고』 15, 朴世采, 元斗杓 墓碣銘, 2003, 31-42쪽 참조.

31) <원두표가 梧里를 가 뵈고 밤에 헛소리를 하다>, 姜數錫, 이민수 역, 『(新完譯) 大東奇聞』, 명문당, 2000, 282-283쪽.

32) 『민간설화자료집』(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2006)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편찬자인 허휘훈은 간행사를 통해 해방 전에 이미 구전으로 전승되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족의 구비설화는 대체로 19세기 중엽이후 조선반도 이주민들의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대량적인 천입과 더불어 자기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조선족의 구비설화는 전통적인 것들을 계승발양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면서 점차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였다. (해제, 조선족 구비설화 조사정리 사업과 그 집대성에서의 중요한 결실, 1) 조선족 구비설화의 존재양상, 17쪽 참조)

을 모방, 답습한 일부 내용에다 원두표에 관한 설화적 전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실존인물에 관한 한 설화의 소설화에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우선 <원두표실기>의 전반부를 보면, 단락 2)에서 원두표가 어린 나이에 귀신을 섬기는 당집을 때려부수고 혼자 자고 있는데, 밤중에 귀신이 와서 보고는 ‘정승대감’이 오신 줄 몰랐다고 하며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는 작자가 陰宅 發福에 의해 장차 원두표가 정승이 될 인물이라고 하는 설화의 내용을 수용하되, ‘義勇無雙’이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원두표를 義勇의 인물로 형상화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변개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때 <홍장군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城隍祠 파쇄 모티프의 영향 내지는 차용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단락 3)~6)에서 스승을 괴롭히는 빗쟁이를 죽이고 감옥에 갇히는데, 옥중에서 만난 異人이 재차 원두표에게 장차 정승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곱 번 살인할 운수라고 한다. 이에 옥졸을 때려죽이고 탈옥 도주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이로써 梁山·密陽·永同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도망을 다니면서 불의한 자를 처단하여 징치하는 이야기인 단락 7)~19)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런데 단락 7)~19)는 앞에서 살핀 대로, <홍장군전>에서 홍윤성이 형 大成的 원수 갚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고, 그로 인해 梁山, 密陽, 永同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도망 다니는 전반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sup>33)</sup>

한편 후반부에서는 숲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던 원두표가 입신할 기회를 찾기 위해 상경하던 중 관리에게 붙잡혀 한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배에서 뛰어내려 압구정 마루 밑에 은신해 있다가 인조반정에 가담하는 것으로 서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 木川 摩尼山으로 도망

33) 여기서 하인 정영식에 의해 문제점이 드러난다. 원두표가 정영식을 당숙집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친숙한 사이로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홍장군전>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때문이다. <원두표실기>,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34쪽 참조.

한 원두표가 입신을 위해 상경하기 전까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솥을 구웠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이로써 <홍장군전>을 모방한 전반부의 단락 7)~19)에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면, 실존인물 원두표의 실제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을 표방한 외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두표실기>에서 <홍장군전>을 모방, 답습한 단락 7)~19)를 제외한 나머지 서두부와 결말부는 역사적 사실의 단편적, 피상적인 수용과 함께 설화적 전승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 3. 창작 방법을 통해 본 <원두표실기>의 소설사적 의의

앞에서 살핀 창작 방법을 중심으로 <원두표실기>의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원두표실기>는 <홍장군전>, <타호무송>과 함께 <수호지>와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극히 드문 事例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점에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호지>는 유학자와 문인들에 의해 혹평과 격찬을 동시에 받으며 폭넓게 우리 독서계를 풍미하였다.<sup>34)</sup> 현종 10년(1669)에는 <수호지>를 읽기 위한 사전으로 白話文의 難句만을 뽑아 해독한 『수호지어록해』<sup>35)</sup>가 나온 데 이어 <수호

34) 李植, 『澤堂集』15, 雜著, 散錄. 世傳 作水傳人 三代龔啞 受其報應 爲盜賊尊其書也. 李德懋, 『靑莊館全書』5, <嬰處雜稿> 1.(『국역 청장관전서』2, 민족문화추진회, 1983. 21-22쪽 및 원문 5쪽) 余嘗看水滸傳 其寫人情物態處 文心巧妙 可爲小說之魁 合號綠林董狐 成大中, 『靑城集』8, 23장, <書仇十洲畫水滸軸後>(여강출판사 영인본, 1985, 177쪽) 然彼亦爲警世作也 人情 孰肯以父母生育之身 樂趨於盜賊之群哉 蓋亦不得已也 飢寒之所迫也 文法之所逼也 感憤之所激也 技癢之所使也. 許筠, <西遊錄跋>, 『惺所覆韻藁』13. 水滸則姦騙機巧 皆不足訓 而著於一人手 宜羅氏之三世啞也 참조.

지>의 번역이 성행하였고, 널리 전사·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仁宣王后(1618~1674)의 書簡에 <수호전>의 이름이 나와 있고, 溫陽 鄭氏(1725~1799)가 1786년에서 1790년 사이에 필사한 <옥원재합기연>에도 <통의수호지>, <성단수호지>의 書名이 함께 실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을 높이는 극히 불온한 내용 때문에 실제로 소설작품 창작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최근까지 알려져 왔다.<sup>36)</sup> 일찍이 澤堂 李植(1584~1647)에 의하여 <수호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던 <홍길동전>에서도 소재면에서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sup>37)</sup> 다만 그 ‘반항성’의 측면에서 다소 영향을 입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sup>38)</sup>

이렇게 볼 때, 20세기에 들어와서 <수호지>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타호무송>을 비롯하여 <홍장군전>, <원두표실기> 등이 국문 활자본으로 간행, 유통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뜻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원두표실기>가 <홍장군전>, <타호무송>과 함께 <수호지>와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극히 드문 事例가 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두표실기>는 <타호무송>, <홍장군전>과 함께 20세기,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위기의 시대에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원두표실기>는 <홍장군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부정적인 인물을 굴절, 변모시켜 義勇無雙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수호지>와 <타호무송>에 나와 있는 尙武精神과

35) 김태준, 『조선소설사』, 서울: 학예사, 1939, 93쪽 참조.

36)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에 미친 중국소설의 영향사」, 『한국고전소설사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608쪽.

37) 李植, 『澤堂集』15, 雜著, 散錄. 筠又作洪吉同傳 以擬水滸.

38) 이혜순, 『수호전연구』, 서울: 정음사, 1985, 268쪽. “홍길동전의 제재는 대체로 한국 전통 세계에서 나온 것이고 반드시 수호전의 영향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허균이 그 제재를 확대하여 반항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데는 혹시 수호전의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義理·義氣精神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실제인물 원두표는 사사로운 청탁에 官奴 夫妻를 杖殺할 만큼 성질이 거칠고 사나웠을 뿐 아니라,<sup>39)</sup> 성품이 엉큼하고 시기심이 많아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끝내 몰래 해친 뒤에야 그만두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두려워했다<sup>40)</sup>고 하였다. 이처럼 원두표가 실제로는 부정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위엄 있는 풍채에다 勇力과 武才를 지녔다고 하는 그의 외형적, 기질적 특성만을 취하여 義勇無雙의 긍정적인 인물로 굴절, 변모시키고, 실제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작품 표제와는 달리 허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忠憤과 義理로써 不義한 자를 처단하고 징치하는 과정을 여실히 그려놓았다.

아마도 이와 같은 서사 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국권을 상실한 당대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고난 극복의 의지를 되새기도록 하는 데서 특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원두표실기>는 식민지로 전락한 위기의 시대에 민족사적 입장에서 義勇無雙한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不義한 外勢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자 했던 데서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4. 마무리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두표실기>의 형성 배경으로 <홍장군전>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원두표실기>에서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고 梁山, 密陽, 永同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도망을 다니면서 불의한 자를 처단하

39) 『仁祖實錄』 인조 2년 8월 19일 기사, 太白山史庫本, 영인본, 33책 637쪽. 靈光郡 守元斗杓, 曾於春間, 領軍往來, 路過井邑, 遂因軍官之私囑, 杖殺官奴之夫妻.

40) 각주 12), 13) 참조.

여 정치한다는 전반부의 허구적인 이야기는 그대로 <홍장군전>을 모방,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아울러 주인공이 인조반정에 참여하고 임금을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한다는 후반부의 이야기에서도 <홍장군전>의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창작 동인과 관련하여, 실존인물 원두표가 위엄 있는 풍채에 뜻이 크고 강직하여 스스로 호걸임을 자부하였으며, 또한 武才까지 갖추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홍장군전>의 독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윤성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두표는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신에 봉해지고 임금을 知遇로 하여 입신출세한 내력에서도 홍윤성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원두표실기>는 외형상 실존인물 원두표의 실제 행적에 대한 사실 기록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실 사실의 수용은 서두부와 결말부를 통해 극히 단편적,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그쳤다. 대신에 勇力과 武才를 지니고 반정에 참여하여 입신출세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서두부와 결말부를 제외한 사건 전개的大部分을 선행 작품인 <홍장군전>을 모방, 답습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서두부와 결말부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설화적 전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고, 따라서 실존인물에 관한 한 설화의 소설화에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창작 방법을 통해서 볼 때, <원두표실기>가 <홍장군전>, <타호무송>과 함께 <수호지>와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극히 드문 事例라고 하는 점, 그리고 민족사적 입장에서 義勇無雙한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不義한 外勢의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자 했던 데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 곽정식, 「<洪將軍傳>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81, 한국  
국어교육학회, 2009, 405-432쪽.
- 김태준, 『조선소설사』, 서울: 학예사, 1939, 93쪽.
- 이경선, 「홍장군전 연구」, 『한국학논집』 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4,  
219-248쪽.
- 이혜순, 『수호전 연구』, 서울: 정음사, 1985, 268쪽.
-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에 미친 중국소설의 영향사」, 『한국고전소설사연  
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608쪽.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서울: 집문당, 1999, 456쪽, 863쪽.
- 조희웅, 『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 서울: 집문당, 2000, 320쪽, 533쪽.
-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집성』 2, 서울: 집문당, 2002, 1023쪽, 1699쪽.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writing Method and  
the Significance of Novel History of <One  
Dupyo silgi(원두표실기)>

Kwak, Jung-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reative writing method and the import of novel history of <One Dupyo silgi(원두표실기)>.

In our Korean old classical fiction history, <One Dupyo silgi(원두표실기)> came into being from the effect of <Hong Changgun jeon(홍장군전)> which initiated or followed <Taho Musong(타호무송)>, <One Dupyo silgi(원두표실기)> was lined up the first half part, so to speak, a hero One Dupyo(원두표)' activities as a jolly fellow and the latter half part, so to speak, One Dupyo' rising in the world and gaining fame. The first half part of work was built up from effect of <Hong Changgun jeon(홍장군전)> and the latter half part was built up in the process of accommodation the historical facts partially and gathering a legendary literature positively.

Concerning the historical import of <One Dupyo silgi(원두표실기)>, I discussed in two points of view. in the first place, because that is one of a few works which are considered the effects of <Suho chi(수호지)>, and at the same time it aims subjugation the control and suppression of an immoral external circumstances, <One Dupyo silgi(원두표실기)> holds an important meaning in our Korean old classical



fiction history.

Key Words : <One Dupyo silgi>, <Hong Changgun jeon>, <Suho chi>, <Taho Musong>, creative writing method, historical fact, legendary literature, significance of novel history

■ 논문접수 : 2009년 7월 3 일

■ 심사완료 : 2009년 8월 5 일

■ 게재확정 : 2009년 8월 10일